

대구광역시

윤석준, 두바이·싱가포르 넘는 미래생산도시 도약...

동구청, K-2 후적지 홍보관 건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기반마련



윤석준(사진) 동구청장이 K-2 후적지(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윤 동구청장은 "K-2 후적지 개발 홍보부터 투자유치 활성화 등 홍보거점 역할을 위한 'K-2 후적지 홍보관'을 아양기차길 내 아양부에 올해 상반기 준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는 개발제한 지역에서 두바이·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미래생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보관 내부에는 통합신공항 실감 영상관과 축소 모형 위로 대형스크린과 연동해 후적지 개발 전략을 설명하는 디오라마 프로젝트선 맵핑 쇼 등이 조성된다.

K-2 후적지 도시특화계획 체험 공간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체험형 콘텐츠도 들어선다.

각종 행사 시 K-2 후적지 홍보부스를 운영, 홍보영상·상품·리플렛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부한다.

시민 공감대 확산과 K-2 후적지 및 원도심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 개발방안 구성 워크숍 등도 한다.

먼저 K-2 후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K-2 후적지 역사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워크숍은 국내외 대규모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개발 선진지 벤치마킹과 병행한다.

전문가 초청 특강은 대구시 총괄계획가 및 마스터플랜 자문단 등 후적지 개발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수시로 연다.

조미경 기자



대구지역 첫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 개장

달서구가 새달 1일부터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전면 개장한다.

지난해 12월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준공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대구 지역 최초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로 반려·비반려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 타지역민들과의 문화·경제적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1월까지 임시개장으로 시설물 미비점 등을 보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대구지역 최초로 조성된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다.

달서구 장동 산28번지 일대 7672㎡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보호자쉼터, 펫카페, 주차장(36면),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 동측과 남측이 대로와 인접해 있다.

남대구·서서 나들목 인근에 위치, 차량 이용객들에게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한다.

때문에 달서구민 뿐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된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청년일 자리를 창출, 다양한 반려견 프로그램을 제공,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장)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하다.

입장료는 중·소형견 2000원, 대형견 3000원(달서구민일 경우 중·소형견 1500원, 대형견 2000원)이다.

마약탐지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반려견에 대한 입장료 감면도 검토한다.

조미경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성 물통니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유망기업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체장 일정 ▶



최기문 영천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금창과 영천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간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전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1월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한다.

화성산업 올해 수주 목표 1조1200억...해외시장 진출

미래 '100년기업' 성장엔진 확보 리스크관리·소통·협업·도전 의지 시장환경 변화따른 신사업 발굴



참석, '리스크관리, 소통과 협업, 도전'이라는 3대 아젠다를 설정했다.

화성산업은 각본부별 경영목표와 전략 등을 공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혁신활동에 기여한 준공현장과 공로자,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장과 무재해 준공 사업장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고객 중심의 관점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화성산업이 새롭게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화성산업은 대내외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차단 또는 최소화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각 부분·팀별간 유기적인 협업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한다.

원가개선과 차별화, 수주제고와 관련된 업무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개척한다.

미래 100년기업을 위한 성장엔진 확보에 힘을 쏟는다.

■ 2024 수주액 1조1200억원

2024년 올해 수주목표액은 지난해 달성한 수주금액보다 약40% 신장한 1조1200억원이다.

업계 최고수준의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민간투자형 사업과 새단장 사업 △미래 가치사업에 전력투구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탄소배출권, 폐기물 자원화, 리싸이클링 등의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신사업을 발굴한다.

다양한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꾀한다.

해외사업은 파키스탄 카리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인도네시아 시장을 필두로 한 아시아권역의 해외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산업은 아시아 이외의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대형단지들이(동대구역센터 화성파크드림 1,458세대, 서대구역센터 화성파크드림 1,404세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고객의 입주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혁신을 통한 품질가치 실현은 더욱 확대한다.

실제에서부터 다양한 제안, 개선활동, 공정관리, 원가개선, 신기술 도입, 체계적인 건설안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품질의 가치를 실현한다.

더불어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진출의 기회를 더욱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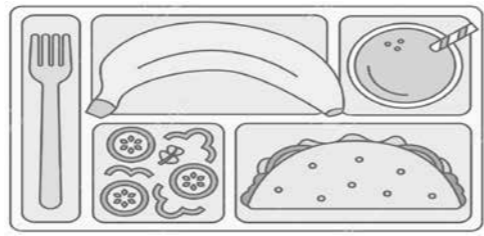
조여은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

경북교육청은 16일 의성도서관에서 학교급식 업무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교육부 학생 건강 증진 정책 방향 △학교급식 업무 보완개선 사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방안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소규모 급식학교 공동 조리교 추진 대상 기준 변경 사항 반영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비 지원 △학교급식 관계자 건강진단 변경 사항 △우수식재료 구입비 인상 등이다.

김진열 군위군수 새해 신발끈 조여매고 소통행보

읍면 방문, 소통의장 마련 군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 '대구시 군위군 시대' 활짝

김진열 군위군수가 새해부터 광복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군위군시대'가 도도히 뚫고 올리면서 100년 초석다지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 군수는 16~19일까지 소보면을 시작으로 8개 읍면을 방문, '읍면순회 군민 공감대화'를 가진다. 김 군수의 읍면순회 일정은 오전·오후로 나눠 △16일 소보면 군위읍 △17일 우보·산성면 △18일 효령·부계면, △19일 의흥·삼국유사면 순이다. 김 군수는 순회대화 기간동안 유관기관을 방문, 노고를 격려한다. 김 군수는 2024년 군정 추진방향, 지역현안을 군민들에게 설명한다. 읍면순회 군민 공감대화에 읍면의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군정 성과와 읍면장으로부

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군민들의 건의사항과 발전방안을 청취,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격의 없는 대화로 군민과 소통의장을 마련한다.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답변하고, 법적, 예산 지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검토 후 빠른 시일 안에 조치계획을 안내한다. 방문에서 지난 11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알린다. 최대 20조원이 투입되는 신공항 연계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문화관광지구와 밀리터리타운 유치 등 읍면별로 특화된 공간계획에 대해 군민 이해도를 높여준다. 군은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정방향을 군민과 공유한다. 주민주도의 군정 발전방안을 함께 짜는 매년 '읍면순회 군민 공감대화'를 하고 있다. 김 군수는 민선8기 출범 후 읍면 방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관내 180개 전 마을도 순회하면서 총 676건의 마을 건의사항을 접수, 일일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안내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펼쳐왔다. 박재성 기자



포항지진 범대본,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

탈원전 때문에 지진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 넣어 지진 발생...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피해배상 목소리를 내 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진 책임자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

지검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가 대체에너지 중 하나인 지열발전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지진이 발생했다 주장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 발생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위험한 일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으로 늘린다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한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앞으로 산발·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21년 한 차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확대한다.

범이 개정되면 산발·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성범죄' 발본색원 나선다

축적된 성범죄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협업 카메라 이용 촬영 성범죄 예방 활동추진

경북경찰청은 오는 17~2월6일까지 그동안 축적된 성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업,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안전종합대책 수립 등 성범죄 예방 정책을 집중 추진해 증가 추세였던 성범죄를 7.2% 감소시켰다. 경북경찰청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성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내 지역별 성범죄 다발 지역 및 취약

시간 등을 선정 후 집중 순찰 및 현장 위험요소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 지자체, 민간전문업체(사설경호업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 후 겨울철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최주원 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유포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 차단 후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민간전문업체 등과 협업해 불법촬영 합동점검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발표

지원 학생 81.1% 1지망 배정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포털(http://hischoolgbe.kr)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교 배정 추천 결과, 지원 학생 2696명 중 스펙트럼교육 대상 학생 3체육특기생 △국가유공 자녀 등을 포함한 2,187명(지원 학생의 81.1%)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2지망과 3지망까지 확대하면 97%의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됐다. 고입 배정프로그램은 배정 추천위원회 각자 뽑은 숫자를 조합하여 나온 8자리 기준번호를 통해 추천이 이뤄지며,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등으로 추천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이상진 교육국장은 "희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만족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野 비례대표제 악용"

인천 계양서 신년인사회 국회의원 수 300→250명 줄이는 법개정 제일먼저 발의 통과시키겠다 밝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선민후사' 가 적힌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등에 이은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

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도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곳 인천에서 네 번째 약속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여쭙는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현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나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질의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며 "법안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대표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해체되면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며 "원내대표와 말을 나누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

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까이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대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실제로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그것으로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 가 잘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당자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아붙였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지금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합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주민들의 강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3개 지역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헛지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이제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경북 기술력 세계 최고... 'CES 2024'서 위상 떨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역기업 전자제품박람회
'최고 혁신상' 등 7개 수상
경북 '저력' 다시한번 확인
글로벌시장 누비도록 지원

경북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최고혁신상 2개 포함 지역기업 총 7개 혁신상 수상, 경북도, 참여기업 발굴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집중 프로그램 가동, 참가기업 A사, 美 현지서 바이어와 100만달러 계약체결을 성사하는 등 CES 2024 경북공동관이 역대 최고성과 가뭏받침한다.

경북도도 지역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종횡무진 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적극 지원하고 있다.

CES 최고혁신상은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 협회(CTA)가 전 세계 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하고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 및 서비스에 수여하는 CES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기업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혁신상을 7개 수상하는 등 경북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상승과 글로벌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공동관 역대 최고 성적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 9-12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7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경북공동관을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이번 CES 2024에서 경북도는 포스코그룹(포스코홀딩스·포스텍) 및 포항시와 공동으로 부스를 조성·운영했다.

경북공동관은 △경상북도관 16개사 △포스코그룹관 25개사 △포항시관 4개사 등 총 45개 사대규모의 부스대로 이뤄졌다.

포항시는 경북공동관에 위치한 위 4개사에 K스타트업관에서 별도로 5개사 운영(총 9개사 운영)했다.

도는 지역의 세계적인 대기업 포스코그룹과 환동해 글로벌도시 포항시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함에 따라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

도는 지난해 7월 CES 2024 참가기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집중적인



혁신상 수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CES 혁신상 수상을 촉진,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혁신상 신청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당 최대 3건의 혁신상 신청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혁신상 수상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1:1 멘토링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과 혁신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기업의 우수 기술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고자 전방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대회 최고의 영예인 CES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2개를 포함하여 총 7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전년도 CES 2023 경북공동관이 2개의 혁신상을 수상(원소소프트아이, 망고슬레브)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박람회서 큰 호평

경북공동관 참가기업들은 이와 같은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박람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도내기업체 A사는 첫날부터 바이어로부터 약 100만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들이 공동관 부스를 방문하고 상담을 진행, 후속 투자·계약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참가기업체 성과확산을 위해 포스코와 협력, 박람회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로 이뤄진 참가기업들과 매칭이 된 지역 대학생 22명도 CES에 와서 힘을 보탤다.

이들은 매칭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학습하고, 해외시장도 조사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보

조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민석 정책실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대표단은 지난 8일 美 현지 도착 직후부터 참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부스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 저력 세계에 떨쳐

9일부터는 경북공동관 부스를 찾아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내외 부스들을 방문해 미래 혁신 기술을 살펴보고 세계시장 트렌드를 파악했다.

12일에는 실리콘밸리 유망기업인 엘비스(LVIS), 플러그플레이(PLUG&PLAY)를 방문해 협력사업 및 경제교류 등을 논의했다.

엘비스(LVIS)는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3년 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가 설립했다.

플러그플레이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기업이다.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을 배출했다. 2006년 설립 후 현재까지 40여개 이상 세계지사 설립, 52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파트너사 보유, 35개 이상의 유니콘스타트업(자산가치 10억달러 이상)을 육성한 바 있다.

경북도 대표단은 이날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도 참가해 산타클라라 한인상공회의소,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 투자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리콘밸리 기업 및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성용 기자

영천 9경 여가행

9가지의 즐거움

영천시

은해사

입고서원

보현산전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댐짚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벚꽃배리길

영천한의마을

별별미술마을



신세계백화점, 가먼트골프 팝업행사 진행 등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6층 Style.golf 매장에서 가먼트골프 팝업 행사를 한다. '가먼트골프'는 테일러링 슈트 브랜드인 포트가먼트의 노하우를 살려 고성복

에서는 볼 수 없는 디테일과 개개인의 체형에 맞춘 테일러링 슈트의 노하우를 담은 골프웨어다. 필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

한 편안함을 자랑하는 의류를 비롯해 장갑, 모자, 가방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만날 수 있다. 행사는 31일까지다. 전 품목 2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백프라자도 LG스타일러 신제품을 판매한다.

▼ 코스피 (-28.40)	▼ 코스닥 (-4.88)
2,497.59	854.83
▲ 엔화 (+4.30)	▼ 유가 (-0.47p)
911.08	1,564.47
▲ 환율 (+9.00)	▲ 금(金) (+32.40)
1,331.50	2,051.60

www.dgy.co.kr

설 명절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 9005톤 방출...

해수부, 물가안정 성수품 중심 전통시장·마트·온라인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000톤을 비롯해 최대 9005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행)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를 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한다.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명태 6000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00톤, 1000톤 등 최대 9005톤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2월 2일부터 열린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현재 선정단계)를 한다.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릴다.

지난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4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설 기간(1월 11일~2월 8일)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월 50~200억원)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밖 수산물도 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이주엽 기자



DGB대구은행, '내부통제전담팀장' 도입

임직원 자발적 내부통제 혁신 동참 DGB 3불(不)3행(行) 핵심가치 선정



DGB대구은행은 올해 새로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체계 정비와 전사적인 업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6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임직원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혁신 동참을 위해 'DGB 3불(不)3행(行)

(行)' 핵심가치를 선정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교육,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을 진행한 바 있는 DGB대구은행은 새해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 자동화 시행과 함께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2019년 RPA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시간 단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온 DGB대구은행은 AI OCR을 도입, RPA와 OCR을 결합해 머신러닝 등의 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AI OCR 도입으로 자점감사 수기점검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며 고객들의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신속하게 분석 후 이상행동 패턴별 시나리오 설계를 통해 금융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새해 새롭게 실시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도입해 본부별로 보다 더 세분화되고 집중된 일상점검, 내부통제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DGB대구은행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내부통제제도 도입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신뢰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임직원 책임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력히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사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정부, 일자리 예산 상반기 10조 신속 집행...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선언 후 70만명 조기 채용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예산 67.0%를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다.

모두 10조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161개(29조2000억원) 중 128개(14조9000억원)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1분기까지 5조5000억원(37.0%)을, 상반기까지는 10조원(67.0%)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당국에서 설정한 중앙재정 신속집행 목표인 65%보다도 2%p 올려 잡은 수치다.

사업별로 직접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 90%를, 상반기까지 97% 이상 집행해 114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설 연휴를 전후로 70만명 이상 조기채용을 추진하는데, 이달 중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 사업의 경우 집행률 차이를 고려해 상반기 중 39.5%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11.3%p 상향한 수치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교부하고, 지자체 및 사업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수행에 나선다. 일자리 TF,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주요 회의를 활용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을 월 1회 점검하고, 부진사업도 꼼꼼히 관리한다.

한은은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올해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설명절 자금난 허덕 중소기업 힘 보태

대구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자금 수요 대응 및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을 저리로 용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보전,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지역기업 1만534개사, 용자 9984억 원 대에 시비 179억 원을 편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차액을 보전했다.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용자 규모를 확대, 경영안정을 꾀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사업 종료에 대비, 특별 특례보증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차보전을 특별우대 대상 기업을 확대, 대구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 인증기업(2024년 4월 시

행)에도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시작했으며, 자금소진 시기 용자 추천이 가능하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조여은 기자

불꺼진 포항제철소 경관조명...

야간 경관조명 점등 현재 내부 협의 중

'포항 12경(景)'에 선정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관조명이 2년째 꺼져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에 따르면 경관조명은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소등됐다. 지난해 5월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잠시 불을 밝힌 이후 다시 꺼지지 않고

있다. 포항제철소 경관조명은 포항의 대표적 관광 자원 중 하나로, 2016년 11월 업그레이드된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채도가 다른 LED 조명에서 노랑, 파랑, 빨강 등 14가지 색깔이 연출되는 경관조명은 하절기 오후 7시40분부터 자정까지, 동절기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야간 경관조명 점등과 관련해 현재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청명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경주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 최근 농자재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89종, 1027대를 서약동, 문무대왕

면, 불국동, 안강읍 등 4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1년간 농기계 1만1653대를 임대해 1억 9100만원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으며, 2022년 대비 9% 증가한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사업 136억 투입...

살고싶은 농촌 공간 마련 맞춤형 농촌 생활권 활성화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주민소통화합공간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내남면은 국비 28억 등 총 48억을 투입,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소통화합공간(다목적 강당)을 조성한다.

경북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16일 착수보고회를 거쳐 올 4월에 착공, 복지회관 새단장은 올해 6월, 소통화합공간은 12월 각각 준공한다.

소통화합공간은 내남면 이조리 일대 연면적 723㎡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회관은 2층 회의실 새단장, 3층 옥외 북커뮤니티실을 조성, 1~3세대가 함께 활동 가능한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복지회관 새단장은 올 6월 마무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산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 40억을 들여 2025년까지 다목적 강당을 신축, 서면은 48억을 투입하여 올 2월 농촌협약을 체결 후 2028년까지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해 복합문화센터, 복지회관 새단장, 다목적 강당 등 주민 복지시설 대폭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순기능을 다각화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각종 생활편의의 서비스가 갖춰어진 농촌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지표를 세운다.



올해 노인일자리 4236명 제공... 180억 투입

5개수행기관지정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시장형 구분 추진

경주시가 어르신들의 소득지원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보다 135억원(3588명) 보다 33% 증가한 180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결과 4910명이 신청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일자리에는 유형별로 △공익활동형(3356명) △사회서비스형(609명) △시장형(271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공익형 일자리 외에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적극 확대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11개월)을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다.

이들은 노노케어와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돌봄·안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과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 60시간(10개월)을 근무하고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다.

어르신들은 신노년 세대의 역할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보육시설, 금융기관 등의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형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규모 매장에서 근로하고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가(12개

월) 배분된다. 시는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경주시지회, 경주분화원,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향후 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을 다각화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대한노인회 주관 기초자치단체부에서 노인복지 대상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마련 등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천년의 땅 경주로 관광 오세요~

'2023 한국관광의 별' 대령원 동궁과 월지 선정 적극 홍보



경주시가 문체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 한국관광의 별'에 대령원과 동궁과 월지가 선정, '경주로ON' 홍보에 나선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관광경기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의 별'은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행사는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인 대령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입장 전 '경주로ON' 앱 회원

가입 후리뷰를 남기면 1명당 2인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천마총과 동궁과 월지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각각 3000원이다.

경주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경주로ON'의 신규 가입자가 5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지난 12일 시작으로 이번달 31일까지 실시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오프라인 깜짝 이벤트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에서 '한국관광의 별'과 '경주로ON' 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홍보영상, 카드뉴스와 더불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뉴미디어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로ON'은 여행자 누구나 통합 관광 플랫폼을 통해 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AI 기반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스마트 모빌리티(KTX, 시터투어, 렌터카 예약·결제) △스마트 오디(숙박, 식당, 체험, 티켓 등 연동) △스마트 편의(AR상점스캔, 도슨트투어) △스마트 경험(게임미피케이션, 미디어월)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민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2월1일부터 한 달 간 신청 접수

경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 '에너지절약인센티브제' 신청을 2월 1~29일까지 한 달 간 접수받는다.

에너지절약인센티브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고지서 발행 기준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다.

신청 시 전기 또는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절감률은 고지서 발행 기준 대상 기간인 올 1월에서 10월까지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정한다.

에너지 절감률이 5~10% 미만은 5만원, 10% 이상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은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경주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221세대 중 144세대가 절감률에 따라 총 1315만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형 에너지절약인센티브제는 냉·난방비를 아끼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수·선물용 식품 안전 대책 추진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계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추적하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은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건강식품판매업소 등 24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작업장의 위생 상태 및 냉·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상태(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도 들여다 본다.



포항 울진 청도 칠곡

이강덕 포항
시장은 17일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에 방문해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 방
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울진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울진군은 오는 2월 13일까지 농
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
는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역
농업대전을 선도하기 위한 신기
술의 조기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
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
을 위해 마련됐다.

14개 사업에 사업비 32억원을 투
입한다. 주요 사업으로 ▲벼 드문
모 생력재배 단지 조성 사업 등 식
량작물분야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경제작물분야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별 신청요건
을 갖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
면 산업부서에 방문하면 되고 자
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054-789-5240)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수 기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안전한 설 명절 준비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양
성자 증가세와 시설 집단감염 발
생 등으로 고위험군의 감염 발생
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중요하지
만 감염취약시설의 집중률은 전년
대비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 따르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에 대응,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
하고 있으나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률(24.1.14. 기준)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40.4%, 감염취약시
설 입원·입소자 47.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창명 기자

울진신년 기자간담회... “함께 살기 위대한 도전”

신성장동력 확보, 관광 1000만시대 등 지역언론인 초청 소통의 시간 가져

손병복 울진군수가 새해 포부를 밝혔다.
울진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2024년 군정 추진에 대해
손병복 군수가 직접 설명하고 이어 기자들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손 군수는 브리핑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2024
년 군정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손 군수는 ▲원자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
성장동력 확보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 1000만 시대 ▲농·어·임업 대전환과 시장
경제 활성화와 방안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 ▲에너지복지 확대 등으로 안전
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약자복지를 강화
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한 사람 중심의 감동 주는
복지 실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섬김행정 실
현을 목표로 2024년 울진군을 이끌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을 수소 생산 선도국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으로 직접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복 군수는 “2024년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울진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의 해”라며 “언
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로 울진군 발전
을 위해 힘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
다. 또한 “울진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인 여

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로 군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소식을 전하
여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
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수 기자

청도군의의회, 제297회 임시회 마무리

갑집년 새해 첫 군정 업무보고

청도군의의회는 지난 8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
다.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는 새해 첫 업무보고로서 분청과 보건소, 농업기
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받
았다.

2024년도 비전과 업무계획 위주로 군정 주요시
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규봉 의원(청도군의의회 부의장)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농림어업분야 총
생산을 확보할 것과 청도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청도사랑상품
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제시했다.

이수연 의원(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청도관
광 9경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홈페이지
를 개설하여 홍보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태 의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



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
정된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
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16일 읍·면 업무보고를 끝
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기업 투자 ALL 지원

기업지원 다이렉트 현장지원단 기업전담공무원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착

포항시가 16일부터 ‘기업 ALL지원TF팀’ 운영
에 들어갔다.

시는 이차전지, 수소·바이오 산업 등을 동력 삼
아 미래 신산업 메카로 급부상함에 따라 몰려드
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다고 밝혔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기업
ALL지원TF팀은 투자유치부터 공장운영까지 기
업활동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한다.

TF팀은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입주, 개발행위
허가, 환경관련 인허가, 공업용수 및 전력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절
차를 지원하며 친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
축한다.

TF팀 운영으로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각종 애
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원 다이렉트 현장지원단도 운영해 고급
라·고물차·고환율 등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 내 기업의 애
로사항을 다이렉트로 현장지원한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업인들과 적극적
으로 소통해 속도감있게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
겠다”며 “다양한 기업지원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산업생
태계를 구축,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초석
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울진,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모집

울진군은 오는 23일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
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
리 역량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마련됐다.

대상자 모집 후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8월에 등
록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허약·만성질환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폰·2G폰 사용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모바일헬스케어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자가 측정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6
개월 동안 스마트밴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
피커를 대여해주고, 매일 스마트밴드 착용하기, 매
일 걷기, 제대약 복용하기 등 개별 미션을 부여한다.

참여자는 스마트폰과 대여받은 기기를 연동하
여 건강미션을 수행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은 미션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경수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도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재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윤경희 청송군수는 17일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주요 사업장과 재난취약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영양군, 2024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 유치

영양군은 지난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20개팀 303명이 참여한다.

1차 훈련(1.15~1.19), 28개팀 339명이 참여하는 2차 훈련(1.22~1.26), 7개팀 194명이 참여하는 3차 훈련으로 구성됐다.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영양군 민화관은 인근에 119 안전센터가 위치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운동장, 볼링장, 헬스장 등의 체육 인프라를 갖췄다.

영양군은 작년 각종 전지훈련을 통해 4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고 매년 전지훈련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재포항청송군항우회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재포항청송군항우회는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0일 포항시 티파니웨딩홀에서 회장단 이·취임식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가지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모임을 참여했다.

황기원 신임회장은 “고향 청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 밝혔다. 윤병로 기자

울릉도 “여행중 만난 친절함을 소개해주세요”

식당, 숙박업소, 카페, 여행사 등 울릉도의 모든 관광업소 소개

울릉군은 지역 상점의 친절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상점 소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릉군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와 좋은 상품이 돋보이는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여행사, 관광지, 쇼핑상점 등을 대상으로 울릉군 관광문화 누리집에 친절상점 소개글을 작성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에게 울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선표와 구매 인증영수증과 같은 관광객임을 인

증하는 서류만 확인되면 관광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친절한 상점으로 소개된 업소는 울릉군 누리집 배너에 이달의 친절상점으로 게시되는 홍보 기회가 주어진다.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친절상점 소개 이벤트를 통해 영업주들의 인식개선을 한번 오는 마는 곳이 아닌 다시 찾는

울릉도가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여러 이벤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대표하는 얼굴은 주민의 밝은 미소와 친절”이라며 “모든 상점들이 친절한 상점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영양군, 제1회 영양 쏘쏘 겨울축제 인파로 북적북적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오감 만족 겨울 축제 호평

영양군 현리 빙상장은 추운 날씨에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제1회 영양 쏘쏘 겨울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개최 중인 '제1회 영양 쏘쏘 겨울축제'가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열려 겨울체험에

추운 줄도 있었다. 이상기온으로 높아진 기온으로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현리 빙상장은 매일 20cm 이상의 얼음 두께를 유지해 안전하게 '쏘쏘 겨울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했던 현리 빙상장은 올해 쏘쏘축제를 개최하며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번 아니다. 다양한 먹거리, 마술공연, 페이스 페인팅,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

는 겨울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축제 11일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난 주말에만 6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제1회 영양 쏘쏘 겨울축제'에서 울 겨울 마지막을 후끈하게 마무리하길 추천한다. 영양군은 올해 성공적인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 다시 찾고 싶은 '겨울축제'를 기획해 '쏘쏘 겨울축제'를 영양군, 나아가 경북도 대표 '겨울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8282민원처리 기동반 1주년

청송군은 지난해 1월 발족한 '8282민원처리 기동반'이 1년간 2195가구(군 전체 세대의 16% 정도), 684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8282민원처리 기동반'은 주택의 불편사항(전등, 콘센트, 수전 등)을 행정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청송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가구가 연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가구(65세 이상 단독·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회당 5만 원 이하의 재료를 지원해준다. 또한 일반가구는 직접 재료 준비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빈집이나 창고, 상가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소카페 청송군, 환경오염 예방 앞장

2024년 재활용품 교환사업 실시

청송군은 환경 친화적인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펼친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종이팩과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을 모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화장지 또는 20L 재사용 종량제봉투,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고급화장지

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건전지는 철·아연·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어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 페지류(종이류)와 종이팩은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수증, 전표, 코팅지, 부직포, 벽지, 오염된 종이 등은 교환대상이 아니다. 또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펼쳐서 건조시킨 후 200ml는 20개, 500ml는 15개, 1000ml는 10개를 3겹 고급 화장지 1롤 또는 20L 재사용 종량제 봉투 3매로 교환 받을 수 있으며, 폐건전지는 10개

당 1세트(2개)를 새 건전지(AA 또는 AAA)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한 후, 라벨을 제거하여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30개당 20L 재사용봉투 3매 또는 화장지 1롤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커피메이커아웃장 등은 교환대상이 아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종이팩과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수거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 재활용품 교환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신경 써 맑고 깨끗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ZOOM

들어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뚝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길
다산·고려·조선·일제강점기
영양은 길의 역사입니다

물
영양은 물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물의 역사입니다

빛
영양은 빛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빛의 역사입니다

숲
영양은 숲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숲의 역사입니다

일
영양은 일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일의 역사입니다

맛
영양은 맛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맛의 역사입니다

심
영양은 심의 역사입니다
영양은 심의 역사입니다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흔의 나이로, 삼의계곡, 수려계곡, 분신계곡, 천변공원, 죽백수원, 영백사선굴
• 영양의 역사, 을사늑약,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채박물관, 보물창고(전통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사, 영양고추농보전사, 영양고추농보전사, 영양고추농보전사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성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성주군보건소는 최근 경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AI(Avian Influenza)는 닭, 오리,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AI바이러스의 인체감염을 말하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으나 해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전형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며,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도재훈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주민 목소리 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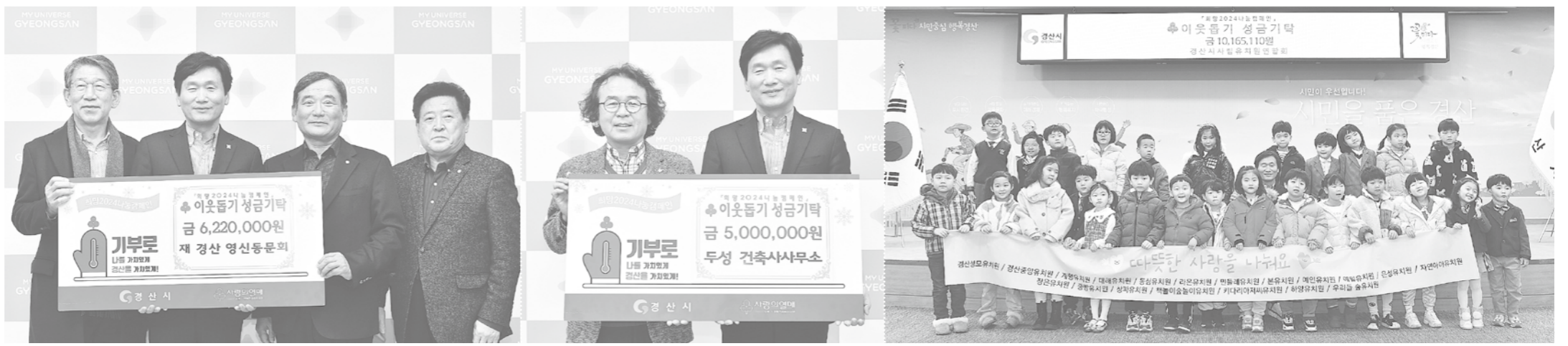


영천시는 16일 금호읍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시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회는 2024년 시정 핵심 사업 및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한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방문 당일 담당 부서가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바로 검토해 조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온기도 전달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사회를 통해 "협업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경산벌에 울려 퍼지는 온정... 사랑 나눔 활화산

경산시 시민단체, 기업, 공직사회 모두 두손잡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온정을 나눠 메서운 한파가 두렵지 않다

■ 재 경산 영신 동문회, 이웃돕기 성금 622만원 기탁

재 경산 영신 동문회는 지난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 622만원을 기탁했다.

동문회 손규진 회장은 "경산에 연고를 둔 동문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웃으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며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1천6만5000원 기탁

경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이미향)는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천여만원을 기탁했다.

이미향 회장은 "원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학부모님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원생들

이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두성건축사사무소,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기탁

두성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권혁주 대표는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 실천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북부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 기탁

북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종현)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백달순)는 15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동장 문계화)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북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복지위기기구를 위한 생필품 전달, 사랑의 감장 나누기 등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이번 성금도 가을철 도로변 낙엽 쓸기,

영농폐비닐 수거 등 다양한 회원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박종현 회장과 백달순 회장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자 회원들의 뜻을 담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성의가 추운 겨울 지역 사회를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 경산시 낙농협회,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 기탁

경산시 낙농협회는 지난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오준기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압량동지회, 현진아그로 성금 기탁

압량동지회 성금 5십만원, 현진아그로 성금 1백만원 기탁

압량동지회는 15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압량동지회는 압량 출신의 인사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만든 모임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매년 성금 모금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압량동지회 백봉규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압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압량동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압량읍 소재 향토기업 현진아그로(대표 강경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올해도 여덟이 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현진아그로는 십여년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탁받은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시민과 단체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성금은 뜻깊게 사용하여 더욱 훈훈한 경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경은 기자

청림 영천시, 공사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 운영

업체당 3억 원 상한 공사 1인 수의계약 제한

영천시는 올해도 공사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2023년 2월 시행한 공사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작됐다.

시행결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줄어들고 여러 업체가 진입해 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도 시행되는 공사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대상과 계약정보를 자체 점검해 동일업체 여부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점검하고, 상한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타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1인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여 발주부서의 수의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철 회계과장은 "상한제 운영 취지는 많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성주, 참외 담배가루이 총력방제 대응 체계 구축

현장과 양방향 소통 통한 병해충 선제 대응 나서



성주군은 여름철 참외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담배가루이 초기 방제를 위해 참외 들녘별 병해충 경보체계를 구축했다.

경보체계는 총 2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예찰과 동향파악을 통해 일정수준의

해충 밀도가 확인되면 들녘단위 경보를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문자로 통보하고 2단계는 동시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참외 생산지인 성주군은 대부분의 참외 재배지가 밀집되어 있어 난방제 해충인 담배가루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개별방제보다는 마을 및 들녘 단위로 동시방제가 효과적이다.

지난 12일 경보체계의 신속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 및 각 읍·면 산업안전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의 수요와 동향에 대해 농업인과의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각 읍·면 모니터링 요원 선발 협조사항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도재훈 기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
-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예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목록

고령옥미

딸기

멜론

개진감자

명품한우

한돈

뚜껑술 세트

고령사랑상품권

고령물 푸른

※ 고향물 푸른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동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드론으로 AI 확산방지의성군 공중방역 실시

의성군은 AI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드론을 활용해 공중방역을 추진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의성군 산란계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의성농협에서 드론을 제공받아 가금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중살포를 시행했다.

드론을 활용한 살포는 의성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방역 방법이다.

AI 발생농장의 차량과 인력 접근을 최소화하고 방역 인원이 접근하기 힘든 지붕, 처마, 나무와 덩굴이 우거진 경사 지역까지 입체적으로 소독제를 살포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군 AI 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현재까지 발생 농가를 제외하고 추가로 확진된 농가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드론은 사각지대 방역은 물론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해 줘 앞으로 군에서는 비상방역시 드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김천시 경유차세 감면

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다.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했다면 해당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낼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054-420-6808)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10%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농업 혁신의 새로운 시대 열다

청년 농업인 500명 육성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구미시는 농업 및 농촌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구미시 청년 후계농은 88명으로,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2024년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통해 2030년까지 영향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500명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1개소, 1억 원)으로 5명 이상의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종자 파종, 비료 및 꽃가루 살포, 논·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을 대행할 드론방제단을 육성하기로 했다.

영농 대행을 위한 영농 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설립을 지원하고, 고령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지원으로 농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꾀한다.

또한 영농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1개소, 1억 원)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자율형 공모 사업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의 분야에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다.

5팀을 모집하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은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선도 농가에서 농업

에 대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의 연수 기간 월 최대 1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선도 농가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교수수당을 지원한다.

영농 초기 경험 미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기법, 창업 방식 등을 배워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목표로 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보급'(2개소, 5천만 원)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영농 정착에 필요한 세 분야 △디지털 농업(스마트팜) △융합 영농(가공·유통·체험관광) △생산 기반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며, 포도 등 6차산업 품목 '청년 농업인 품목별 컨설팅'을 통해 이론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 심층적 컨설팅을 제공

할 계획이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 4-H 활동 지원 사업'과 '영농 4-H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구미시 4-H 연합회를 육성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센터는 우수 농산물 생산 활동과 선도 농가 방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폭넓은 농업경험을 경험하고 기술을 익혀 그들의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며, 노동력 절감 장비를 보급해 고령 농가 일손을 도와 미래를 이끌 농촌 리더를 키워내고자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구미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할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재정집행, 경북도내 최우수 구미시, 아동보호 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뽑혀

도 종합평가 13년 만에 쾌거 기관표창·특조금 3억원 확보

상주시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경상북도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

기관 표창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상주시는 재정집행 목표액 1조 3367억 원 대비 1조 2568억 원을 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 목표액 1273억 원 대비 1337억 원을 집행해 13년 만에 경북도 종합평가 최우수라는 쾌거를 이뤘다.

상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올해도 국비 7000만원 확보 장애인화 학습도시 조성 탄력

상주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장애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4년 제1회 추경에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장애인 주산교실, 통(通)통(通) 상주 문화 속으로 등으로 구성된 △지역 특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상회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직업교육과정 운영, △장애

아울러 상주시는 경북도의 지난 2023년도 3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재정집행 분야에 탁월한 성적을 보였다.

한편 상주시는 이번 성과를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재정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의 모든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부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등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신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 관내 8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발달 장애인·해당화 대학, 농인과 청년이 글과 그림으로 통하는 예술교실, 장애인 초중등 검정고시반 운영, 척수장애인 음악치료 힐링 프로젝트, 장애공감 특강, 도 박람회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물론 초·중등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드론 자격증 취득, 주민 초청 음악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2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장애인화 학습도시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이 평생학습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모든 분야 고르게 호평 얻어

구미시가 아동보호 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조직·인력 △사례 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등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구미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0년 7월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채용하는 등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아동보호 자체 예산 확보 등 아동보호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현장 전문가인 변호사,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 학대 예방경찰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 심의위원회(사례 결정위원회)를 매월 대면 회의 개최로 정례화했다.

평가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전문 가정 위탁, 전문 치료시설 전원 조치 등 아동의 권익과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 지역자원 활용과 민관 협업을 통해 심리, 정서, 생활, 학습 등 보호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연계하고 가족사건 활용 시책 추진 등 촘촘한 아동보호 서비스 또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민이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틀 없는 공적 안전망을 강화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의성 안계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리 마무리

국민임대 경쟁률 5.71대 1 행복주택 경쟁률은 2.61대 1

의성군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안계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성안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모집결과 국민임대 5.71대 1, 행복주택 2.61대 1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온라인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해 현장접수를 안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점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조성될 국민임대주택(42세대)은 무주

택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주택(98세대)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최종 신청된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 총42세대 중 240세대가 신청했고 경쟁률은 5.71대 1이다.

행복주택은 총98세대 중 256세대가 신청했고, 경쟁률은 2.61대 1로 나타나 많은 군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요는 3월 28일 당첨자 발표와 12월 중 입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대응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의성군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분들이 신청한 만큼 군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예천



권기창 안동시장은 17일 오전 서울 안동발달에서 진행되는 안동시 농특산물물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한다.



사이버 안동장터 설맞이 이벤트

안동시의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www.andongjang.com)'가 설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맞이 이벤트는 ▷ 6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구매고객 3000원 할인쿠폰 지급, ▷ 10만 원 이상 구매고객 10% 할인(최대 30만 원), ▷ 신규 회원 1인 5000원 할인쿠폰 지급, ▷ 설맞이 택배비 지원(건당 1000원)으로 고객들이 안동의 명품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최준길 기자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4연속 경북도 지정축제 선정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2024-2025년도 경북도 지정축제' 심사에서 4년 연속 지정 축제로 선정됐다.

경북도 추석명절을 대표하는 축제 자리로 굳혔다.

지난 10일 경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콘텐츠, 안전관리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정축제'를 최종 선정했다.

삼강주막나루터 축제는 K-세일즈맨의 원조격인 보부상의 하루를 체험하는 'K-세일즈맨의 하루'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보부상 운동회'를 비롯한 활쏘기, 청년농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삼강주막의 역사적 스토리를 재현하기 위한 주모 선발대회와 삼강 플로깅, 청년농음 달 만들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안병욱 기자

봉화군민안전보험...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올해부터 보장항목 확대

봉화군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

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봉화군은 2024년에는 보장항목을 33개(2023년)에서 37개로 늘리고 일부 보장 항목 금액을 최대 1700만 원을 상향하는 등 봉화군민이 두텁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그동안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2022년에는 5건(약 5천만 원), 2023년에는 15건(약 2억2천5백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장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839)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누리집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국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청년과 지역 만들기 총력

예천군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 총 4개 분야 10개 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만들기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청년업무를 통합 추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구축,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 '창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창업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창업활동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키움·도움사업'을 새롭게 실시해 창업 단계별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의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의 활동 지원과 확대를 위해 '청년센터 이음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는 청년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고민인 일자리, 심리, 지역소통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의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과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영주시, 계절근로자 직접선발... '우수 인력 적기 유치'

필리핀 현지 방문

농촌인력난 해결까지 노력

경북 영주시는 농촌인력난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올해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중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해외지자체에 전담팀 실무단을 파견해 계절근로자의 건강·체력검사 및 면접을 실시해 우수한 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4일 농업정책과장 및 전담팀 인력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선발 실무단을 필리핀 로살레스시에 파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박남서 영주시장이 로살레스

시에 방문해 윌리엄 S. 세자르 로살레스시장과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실무단은 농가별 연령·성별·체력·생활습관 등 사전수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인삼·사과·생강 등 지역의 영농환경에 적합한 신규 근로자를 면접과 테스트를 거쳐 2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근로자 선발 절차는 △체력검사·혈압·혈당·색맹 여부 등 기초 건강검사 △외발수레끌기·순발력테스트 등 체력검정 △영농경력·공동생활 적합도·농기계 및 한국어능력 등 근로자 개별면접 3가지 절차로 16일 진행됐다.

또 실무단은 성실근로 계약규자 및 신규 선발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정서·예절안내 등 현지 사전교육과 계절근로자 가정방문 등 현지 심층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뛰어난 계절근로자를 엄선 및 교육해 지역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인력팀을 신설해 시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촌인력난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영주시가 유치한 계절근로자는 연장근로 인원을 포함하면 총 414명으로 그 중 필리핀 유치협약 근로자가 278명, 베트남 등 결핵이민자가 136명이다.

전년도 108명에 비해 유치 인원이 연인원 383%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가축방역·축산물위생 등 33억 원 투입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봉화군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올해 가축방역·축산물유통·동물복지 3개 분야에 33억 원을 투입해 32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대책으로는 △민관 공동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

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강화 및 공급기반 조성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의 체계적 인관리 등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국비 3년간 1억 8천만 원 확보

안동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4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계획평가

에 따라 차후 2년까지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3년간 최대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장애인의 체계적인 학습지원 기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03년 대구·경북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안동시가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며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인제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선
림
핀
다
주
영
YEOONGJU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영주시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을 검색해보세요!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을 잊지 마세요!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생 각 까 지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총선, 현역 의원들 평가부터 제대로 하자

박 병 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헌법 제40조) 아무 법이나 만들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왕왕 만들지 말아야 할 악법을 만든다.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일은 표로 연결되지만 전 국민을 위하는 일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 것 같다.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농민, 노동자, 공인 중개사, 택시 운전자 등 각 분야 이익은 열심히 챙기는데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늘 뒷전이다.

우리 경제와 젊은이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대표적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라 부르는 2020년 3월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버, 리프트, 그랩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령형 공유 경제 방식 신사업을 막아 버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찬물을 끼얹은 죄를 물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등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수도룩하다.

이유는 규제도 허파해서 창업을 촉진해야 할 판에 기존 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굳이 법을 개정, 망가뜨렸으니 가장 죄질이 나쁜 경우다.

직방금지법이라고도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어 아직 미수범이기는 하지만 발의한 의원들에게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

타다금지법의 폐단과 로톡, 삼점삼 등 플랫폼

폼 신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다 지켜보고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

좀 오래되었지만 2013년의 정년 60세 의무화법도 상기해야 한다.

57.2세였던 기업들의 평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여 3년간 정년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호봉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할 때쯤이면 초임의 3배 정도 임금을 받는데, 3년간 제대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신입 사원 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은 불문가지다.

젊은이들의 취직, 결혼, 출산에 악영향을 끼쳐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입법 못지않게 매년 660조원 쓸 곳을 정하는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도 중요하다.

헌법은 또 제57조에서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의 각항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은 다 헌법 위반이다.

행정부는 이런 위헌적 법률은 무시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줄을 잇는 것도 문제다.

작년 4월에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래 예타는 면제할 수도 있고, 예타 결과가 미흡해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타당성이 없었던 사업 위에서 건설된 나라다.

다만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전제로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고 국회가 예타 면제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여기도 미수범이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결국 비행기가 한 번도 취항한 적이 없는 울진공항급 망발임에도 발의자가 261명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부화뇌동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은 상당 부분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다. 나랏돈을 낭비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 항목이 전체 예산안 속에 파묻혀서 통과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 어렵다.

예타 면제법들은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발의) 동조한(찬성)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증거다.

이런 짓을 하다가는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요컨대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법 만들기나 나랏빚만 늘리는 헛돈 쓰기를 일삼은 사람들을 다시 뽑지는 말자는 말이다.

이런 전과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를 주자. 돈을 벌어서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을 뽑자. 불체포특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의원 대우와 특권을 다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 주자.

오늘의 정치 논평

민주당은 당대표 측근... 성비위 한없이 관대



국민의힘 정책홍원내대변인

성 비위 논란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당연구원 부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총선 출마 논란이 접입가점입니다.

지난해 말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피해자의 실명까지 노출되며 2차 가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국 눈높이에 따르면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 명백한데도,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상식 밖의 옹호와 관대한 대응으로 '현근택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투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까지 받았습다.

부적격자에 대한 '적격 남용' 행태에 오죽하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 처참한 수준'이라는 말까지 사용했습니까?

이따른 상식 밖의 결과는 민주당 대표의 일방적인 제1구 감싸기와 민주당의 낙제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소위 '민주당 스탠다드' 덕분에 보입니다.

민주당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을 벌여왔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감싸고 둔다면 민주당은 '성추행당'이라는 조롱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 스탠다드'를 적용해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당대표 측근이라면 성비위자라도 한없이 관대한 몰상식한 제1구 감싸기 행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 넘겨라 권고 당언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한 계기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도 김광호 청장에 대해 불기소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당시 외부 전문가들은 혐의가 인정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도 받았습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미뤄가며 유가족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당한 기소를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참사 발생 후 두 번이나 해가 바뀌고서야 간신히 김광호 청장의 기소 권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다.

거리를 헤매야 했던 유가족들은 여전히 더욱 위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권고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제언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운동 본격화 대비

지난 13일부터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되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서민가계 부담 증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대구시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도를 규탄하고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시민공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던 시민사회가 무상교통 추진 운동을 위한 강연회를 갖고 대구지역 무상교

통 추진운동을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나섰다.

오는 17일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주최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이들은 이번 강연회를 기점으로 무상교통의 국내·외 사례와 함께 무상교통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구지역에서 무상교통 추진 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

이다.

이들은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 줄어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률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모두와 함께 무상교통 추진운동본부 구성과 주민조례청구운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

꿈나무육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일반부
 -신페리오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